

## 大學教育과 人間教育

元 鎬 澤

(서울대 心理學科)

우리나라의 大學生들은 청소년기에 거쳐야 할 발달과업을 미룬 채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학에는 인간의 이해나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 성숙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길러 주는 敎育科目이 거의 없다. 人格이나 德性은 중등학교까지 혹은 가정에서나 교육하고 개인이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라는 인식은 철저히 불식되어야 한다. 이 글은 대학에서 인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와 인간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 몇 가지 人間敎育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 1. 머리말

대학의 교육기능을 말할 때 흔히 세 가지를 든다. 학문의 秀越性을 위한 교육이 첫째요, 專門職業人을 위한 교육이 둘째이다. 그리고 敎養敎育 또는 지성인으로서의 人格涵養이 셋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해방 이후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나, 교육적 측면에서는 발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 8·15 당시 1개 대학과 18개의 전문학교가 있었는데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130개의 4년제 대학, 11개 교육대학, 그리고 119개의 전문대학을 갖게 되었다. 학생수도 해방 당시 전문학교생을 포함해서 8,000명도 안 되었는데 현재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생 인구가 100만이 훨씬 넘는다. 의형상으로

보면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실재를 보면 질적으로 담보상태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이 전문지식을 주입하는 학원으로 변질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근래 이러한 지식위주의 대학교육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敎育亡國論까지 들먹이는 학자들이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制度敎育이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육의 위기를 경고하면서 이를 인간교육으로 극복할 것을 주장하는 소리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人間敎育이라는 개념은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주로 인본주의 교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성적 인본주의, 낭만적 인본주의 등의 교육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필자는 교육의 한 思潮로서의 인간교육을 거론하고 싶지 않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人本主義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도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의 생활문제를 상담하며 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는 일에 몸담아 온 입장에서 대학에서의 인간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인격 함양 또는 최고학부를 나온 교양을 지닌 성숙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을 人間教育이라고 보고, 왜 이러한 인간교육이 대학에서 절실히 요구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人間像을 인간교육의 목표로 할 것인지, 인간교육을 위하여 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人間教育은 왜 필요한가

### 1) 社會的·教育的 狀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敎育의 危機라는 말을 자주 한다. 거창하게 교육제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교육의 위기를 느끼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하였다. 사실 '70년대 이후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교육받은 많은 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70년대 후반부터 敎育危機論이 대두되는가? 무엇이 그렇게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인가? 학교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학교교육이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태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 초등 및 중등교육이 대학입학이라는 엄청난 장벽을 뚫는 데에만 급급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교육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는 나머지 敎育投資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 교육의 위기를 가져온 이유라고 한다.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수준 이상에서 우

리만큼 교육투자가 미미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타당한 분석이다. 그 중에서도 초·중등·대학을 막론하고 학생수에 대한 교사 또는 교수수가 우리나라만큼 적은 나라도 드물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 교육이 되겠는가?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形式的 學校敎育을 통해서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유형의 인간인가 하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학교성적과 대학입학이라는 것 때문에 극도로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분석력·창의력은 전혀 외면한 채 진학시험에 필요한 단편적 지식의 기억을 위주로 하는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 덕성과 감성, 지성과 행동이 잘 조화된 統合된 人間을 교육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교육의 추세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교육 이념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으로서 敎養과 人格을 갖춘 성숙한 인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과 인격을 갖춘 인간교육은 불행히도 대학에서는 별로 없었다. 게다가 '6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수단과 방법은 어떠하든지 부나 지위를 성취하는 인간을 훌륭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敎育風土에서 키워진 인력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받은 인간 때문에 지난 '70년대와 '80년대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러한 인간교육이 없음으로써만 생긴 것은 아니다. 독재적인 정치풍토, 산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지식위주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승자와 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집단과 소외집단으로 지나치게 양분되어 심한 갈등을 겪는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전승했던 대가족제도나 동네중심의 사회가 무너지면서 가정이나 동네를 위주로 하는 지역사회의 전통 가치 교육기능이 무력화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새로운 민주사회의 價値教育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 혼란은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던 가정과 학교에서 키우지 못한 교양있는 인격을 갖춘 인간이 어디서 생겨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덕성과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 고도의 정보지식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한 사람들이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끈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 2) 大學 人間教育의 實相

대학의 주요 교육기능 중에서 인격도야 또는 덕성함양, 교양있는 지성인의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의 현실은 이 분야의 교육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 흔히 教養教育 또는 人格涵養을 위한 교육은 세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교육이 교양교육의 핵을 이루고 있고 인격함양을 위한 유일한 공식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시간배분도 낮아 인격함양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실하다. 예컨대 서구국가에서는 교양교육이 대학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에서 50%를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대학일수록 교양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0% 선을 겨우 넘고 있으며 그나마도 어학을 비롯한 도구적 교양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이 반을 차지하여 순수 교양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심리학·자연과학개론·사회과학 분야 등은 아주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인간의 이해나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 건전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適應을 위한 교육과목은 거의 없다. 우리보다 낙후한 나라보다도 못하다. 예컨대 필리핀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졌지만 대학에서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교육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케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수와 학생간에 개별적 지도관계를 통

해서 인격교육을 받는 것이다. 원래 대학교육이 도제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던 때에는 이런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정보·지식을 습득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고 대학이 大衆化됨으로써 교수와 학생간에 1대1의 관계란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교수들도 개인적인 학생지도가 교수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는 이는 별로 없다. 인격이나 덕성의 교육은 중등학교까지의 교육에서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르치거나 개인이 스스로 배워가는 것이지 대학의 교육과제는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대학생의 성장과 적응을 돕는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활동과 학생의 자율적 활동 등 비정규 교육과정을 들 수 있겠다. 지난 10여 년간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지도를 도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생의 발달과업에 따르는 지도와 상담활동이 아주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모든 대학에 學生生活研究所가 설치되도록 법률로 정해졌으므로 명목상 모든 대학에 이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상담이나 발달분야의 전공이 아닌 교수들이 겸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 분야의 전공교수나 전임상담자가 있는 곳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하는 학교도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인격도야나 덕성의 함양이 필요치 않다는 것인가? 이러한 교육이 필요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인격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3) 大學生의 人間教育에 대한 절박성

우리나라 대학생은 청소년기에 거쳐야 할 발달과업을 미룬 채 대학진학에만 급급하다가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반 민주시민으로서의 행동규범이나 한 인간으로서의 正體意識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온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생활을 보면 혼

란과 방향이 특징적이다.

대학생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 공부에 곤란을 느끼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에 익숙지 못하다. 논문식 리포트를 쓰는 데 여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극심하다. 人間關係를 갖지 못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학생이 30%를 넘으며, 대화중에 남을 해치거나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의 직접적인 고백을 듣는 것이 더 생생할 것이다.

“입시지옥을 지나서 대학에 들어왔다. 꿈과 낭만에 부풀었던 기대는 무너지고 시위가 계속되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지식의 홍수, 그 속에 내가 설 자리는 막연하다. 수업방식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선택과의 관계도 힘들다. 그리고 많은 모임, 그런데도 대인관계가 쉽지 않다. 참으로 분주했는데 혼로스기는커녕 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학은 방향의 시작이요, 모임의 홍수다. 취직의 디딤돌이라고 하지만 대학 1년의 생활은 그저 후회뿐이다.”

“대학은 인간관계가 없다. 고교 대와 비교해서 아주 삭막하다.”

“대학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뿌듯하지만 어린이를 버린다는 것은 한편 서글프다. 내가 시간을 계획하고 동료나 선배와 대화하며 이성도 사랑하고, 이런 것 모두를 나 혼자 결정하고 꾸려간다는 것이 여간 갈등되지 않는다.”

“대학 1년 동안 낭만을 생각하다가 또 데모하다가 그 많은 시간을 다 보냈다. 너무도 아까운 시간이었다. 이제는 방향을 끝내야지. 진실로 아까운 시간을 혼란과 방향 속에 보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대학생이고 보면 전문적 지식교육이나 학문적 교육이 중요하다지만 인간교육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더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 3. 이 時代에 키워야 할 人間像

근래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산업사회를 지나고 있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탈

산업사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 세기를 전망하며 한국의 지성인상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다. 현재 대학교육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지식위주의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정보화사회와 탈산업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교육의 위기를 말하고 일대 전환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여기서 미래사회의 인간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입장을 언급하기로 한다. 이영덕 교수는 21 세기를 향한 人間教育이 지향해야 할 目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운다.
- ② 선을 추구하고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 욕망을 이기는 힘을 키운다.
- ③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키운다.
- ④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갖게 한다.
- ⑤ 미래투시적 안목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키운다.
- ⑥ 자주·자율적이며 책임있게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 ⑦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민주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을 키운다.
- ⑧ 더불어 잘 살기 위하여 협동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키운다.
- ⑨ 세계시민적 안목과 책임감을 키운다.

이러한 목표는 이미 학생상담이나 발달성장에 관심을 두는 生活指導的 측면에서 제시하는 교육목표와도 일치한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간공동체의 삶을 전제하여 인생에 대한 장기적 목표 또는 목적을 설정하고, 둘째로 각 개인은 생태적으로 주어진 잠재능력의 개발과 수용을 통한 직업적 선택의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그 방향을 잡으며, 셋째로 친우관계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기능을 육성하고, 넷째로 이성관계·성·결혼·가정생활에 관련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며, 다섯째로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문제 등에 관하여 자기 나름의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발달시키고, 여섯째로 자기 자신·가족·사회·국가·세계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태도와 가치관 발달을 도우며, 일곱째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 등이 생활지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고도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할 인간상을 이와 같이 知性人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춘 教養人이라고 한다면 다스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키우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인간상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인간교육의 구체적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점이 그동안 대학에서 인간교육을 소홀히하게 된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大學의 人間教育 方向

대학은 앞으로 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양교육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의 개인적 지도 관계에서, 그리고 학생생활연구소와 같은 학생 상담과 성장을 돕는 전문기관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거론하는 학자는 별로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교양과정의 한 교과목이나 학생생활연구소의 집단교육프로그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教養課程의 人間教育 강화

정규 대학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을 강화하면서 인간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全人教育의 강화를 위하여 인문·사회·예술·체육 분야의 확대, 논리적 창의력·이해력 및 논리적 사고·논술 능력의 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겠다. 德性 함양이나 人格教育을 위해서는

덕성함양과 민주시민교육,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며 질서인식을 함양하는 인격교육, 현실인식과 가치관의 교육, 삶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천적 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개 학과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학 차원에서 統合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教授의 學生指導 기능 강화

교수의 학생지도 기능을 강화하려면 학생지도 위한 일정비율의 시간을 교수의 주당 강의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수와의 對話를 통한 인격적 교육을 원하는 대학생이 70%를 넘는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와 개인적 대화를 통해 지도받는 학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교수의 학생지도활동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한때 교수의 학생지도 기능을 학생운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교수의 학생지도 기능이 왜곡되었던 것은 대학의 인간교육을 위해 불행한 일이었다.

##### 3) 學生生活指導 相談분야의 강화

이를 위해 현재의 학생생활연구소를 활성화해야 한다. 즉, 연구소 책임자는 상담과 발달분야의 전공교수를 임명해야 하고, 상담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분야를 담당할 전임교수나 전문가가 보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대학생의 성장·발전을 돕는 다각적 상담활동, 집단훈련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담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지닌 문제를 교정하는 상담뿐 아니라 이들이 자신을 더욱 정확하게 통찰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잘 이해·수용·개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향으로 個人相談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② 자기이해·자기수용·자기개방·자율성 함양을 위해서는 개인상담보다 '小集團訓練'을 학교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생활지도의 강조점이 개인상담에서 집단상담으로

로 옮겨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소집단훈련은 주로 10~20명으로 구성되는 한 집단이 정규적 모임을 갖고, 서로의 공동노력으로 각자의 자기성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자유롭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각자는 자기자신을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으며, 상호간에 진실한 피드백을 주고 받음으로써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간에 의미있는 人間關係의 경험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활지도의 적극적 입장이란 자기이해·자기수용·자기개방·자율성 등을 함양하여 진실로 獨立된 人間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인격함양에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4) 人間教育 프로그램의 實例

##### ① 잠재력 개발 프로그램

이 집단훈련과정은 건장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한한 潛在力을 발견하도록 돕고 自我實現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표로 삼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자기긍정),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생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자기결정), 스스로 결정한 일을 용기있게 추진할 수 있고(자기동기), 타인의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타인에 대한 이해의 증대)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하고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집단훈련과정은 내용이 미리 계획되어 있으며 대개 2시간씩 10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기의 주제들은 대개 개인소개, 공감했던 이야기의 회상, 실천가능성 있는 목표 설정, 가장 좋았던 경험의 회상, 만족·성공·성취했던 일들에 대한 인식과 분석,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하게 하기, 가치관의 경매, 개인의 강점 인식, 장기목표 설정,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에 대한 검토 등이다.

##### ② 가치명료화 프로그램

價値明瞭化란 말은 원래 Raths가 개발한 프

로그램의 이름인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개발되었다. 즉,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우리의 삶의場所は 여러 가지 가치의 갈등 속에서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끝없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가치를 개인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고 다양한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교까지의 교육에서 경단만 있는 교육을 받다가 다양한 가치의 선택을 하려니 이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참된 민주주의는 이룰 수 없다. 그런 만큼 가치명료화 교육은 진로지도뿐 아니라 고도 산업사회 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교육이라고 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대개 다음의 세 단계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하게 탐색한 후 최선의 한 가지 신념이나 행동을 선택한다. 둘째, 선택한 신념이나 행동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찬동하며 공고히한다. 셋째,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여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위한다. 이러한 가치 발달 혹은 가치명료화 과정을 근간으로 하여 상담과 생활지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명료화 전략이 개발될 수 있다.

##### ③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대응훈련이란 스트레스에 적극 대응·극복함으로써 성숙된 인격을 도야하고 더욱 안정된 성격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스트레스란 무엇인가를 인식케 하고, 스트레스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을 교육한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변화가 극심한 산업사회에서 성장경험과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스트레스 자극, 예컨대 과도한 업무량이나 어려움에서 생기는 좌절, 친구나 이성교제에서의 좌절, 부모의 사망 등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

을 이해해야 되고, 둘째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정확히 평가·해석하여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관한 강의와 가상적 상황의 실습,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주제로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때는 역할연습을 시행하기도 한다.

#### ④ ‘마음의 대화’ 프로그램

인간관계는 對話라고 할 수 있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도 만들고 원수도 만든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화할 줄을 잘 모른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흔하다. 人間尊重은 구체적으로 대화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잘하려면 효과적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법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상적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여 이러한 언어가 얼마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가 모호한 지를 검토하며 상대방의 말을 깊이있게 듣는 훈련을 한다. 또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면

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훈련하게 된다. 이러한 대화법을 훈련받으면서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흔히 생기는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 훈련은 주로 토의와 역할연습, 실연을 통해서 하게 된다.

## 5. 맺는 말

지금까지 학생의 생활지도와 상담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人間教育의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성장이나 과학기술 개발에서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고, 2000년대의 탈산업사회를 바라보면서 대학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진대 최고 지성을 지닌 인격을 갖춘 인간교육의 강화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도의 정보·지식을 갖고 있는 로봇 같은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산업사회를 지혜롭게 대처할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